

© Ant "wooden genealogy type"

## 忠義集傳과 校書館 鐵字 印本들

—反‘印譜木活字’論—

尹炳泰  
(高麗大學校 司書)

## 머 리 에

이 小記는 筆者가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圖書인 義會堂忠義集傳을 整理하다가 그 책의 卷末에 있는 崇禎紀元後四丁酉孟夏校書館活印

이라는 印出記를 본 다음, 그 책을 찍은 活字를 알아보고자하여 調査하던中 알게된 몇가지 사실과, 그것이 木活字가 아닌 鐵活字이며, 또 그 活字로 찍은 책이 따로 많이 있음을 알게되어, 그 궁금한 것을 손에 닿는 데로 풀어본 경과를 적어 놓은 것이다.

## 義會堂忠義集傳

이 義會堂忠義集傳은 上·中·下의 3編을 1冊으로 合綴한 것이며, 크기는 세로 33.9cm 가로는 21.8cm 두께는 1.6cm 이다. 表紙는 紺字紋을 찍은 黃色이며 그 構接紙로는 書名을 알 수 없으나 이 忠義集傳과 같은 活字로 찍은 族譜의 斷葉을 쓰고 있다.

表紙上에는 「忠義集傳〈全〉」이라는 略稱으로된 書名이 墨書되어 있으며, 內題 역시 「忠義集傳」이라고 木板으로 찍혀있으니, 글씨體로 보아 表紙上의 書名을 쓴 사람과 同一人의 筆蹟이 分明하다.

책머리에 「純宗大王〈御筆 御筆〉」이 大字로 2行 行當4字씩 木板으로 9張이 찍혀 있다. 이는 純祖가 짓고 쓴 것이며 內容은 公忠兵使 金貝臣의 功을 致賀하고 田結·奴婢 등을 賜給한다는 備忘記로 날자는 嘉慶十七年(純祖12年, 1812)六月日이다.

이 어 崇禎後四丁酉(憲宗3年, 1837)端陽에 承政院右承旨인 豊壤趙乘憲이 撰한 忠義集傳序와 聖上御極之三年 丁酉(1837)仲夏에 坡平尹濟弼(弘)이 撰한 義會堂忠義錄序, 丁酉(1837)仲夏下濬에 豊城趙容和가 題한 題義會堂忠義錄等 3首가 6行씩 草書體로 쓰여 木板으로 全12張이 있다. 다음 忠義集傳凡例가 모두 14條 있으니 여기서부터 問題가 된 活字로 찍혀 있다.

이 凡例에 의하면, 이 책은 모두 3編으로 上編은 古來名賢事蹟이요, 中編은 辛壬平賊事蹟, 下編은 義會堂事蹟으로 옛부터 忠義가 相傳되었기에 辛壬의 倡義가 있었고 故로 義會의 事蹟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모두 3張이다.

다음 忠義集傳目錄 2張이 있고, 이어서 義會堂忠義集傳卷首로서 本文이 始作되는데, 이의 卷末題는 上編으로 全15張이다.

이 卷首 第1張의 版式을 보면 邊欄은 四周單邊으로 匡廓은 23.4×16.6cm. 有界로 10行20字이며, 版心은 上下內向太四辨花紋魚尾(單線. 單絲)이고, 上魚尾 위에는 大字로 忠義集이라는 書名이 있고, 아래에는 小字로 「上編」이라 表示되어 있으며 下魚尾 바로 위에는 張次가 大字로 印刷되어 있다. 下魚尾 아래는 白口이다.

이 책 中編은 32張이며, 下編은 44張이다. 第40張부터는 跋文이니, 丁酉(1837)孟夏에 進士 廣陵李基濂이 지은 跋과 丁酉(1837)中和節 桃源散人光山金聖樞의 跋이 있다. 이 跋에서는 冊의 成立에 對한 事實以外에는 出版에 關한 얘기는 없다. 그런데 第44張 뒷面에 前述한 校書館活印의 印出記二行이 木刻字로 組版되어 있다.

이 冊의 內容에 對한 具體的인 事項은 이 小記의 根本目的이 그 活字를 다루는데 主眼이 있으므로 더 다루지 않는다. 그 冊의 主題인 洪景來의 事蹟만 하여도 時代와 史觀에 따라 다르므로 史學이 專攻이 아닌 筆者로서는 이 以上 다룰수가 없는 것이다.

이 忠義集傳은 그 印出記로 보아 憲宗3年(1837)六月에 校書館에서 印出된 것을 알 수 있다.

校書館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히 다루겠거니와, 이 政府機關의 하나인 校書館에서 活字로 찍었다면, 그 活字는 校書館에서 鑄成·刻成·買入·借用 등의 方法에 의해, 그 活字가 校書館에 實存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書冊을 印出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고활자”

이렇듯 校書館에서 印出을 했든, 아니했든 간에 우리나라의 活字本을 그 標本까지 原形 그대로 모아놓고 說明한 古活字의 見本帖들이 몇가지 있으니, 그 중에서도 손보기博士의 “한국의 고활자”를 으뜸으로 손 꼽을 수가 있을 것이다.

筆者는 忠義集傳이 校書館에서 印出되었음으로, 그 活字의 見本이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한국의 고활자”를 뒤져보았다. 그 책 p.134에 忠義集傳과 똑같은 活字로 찍은 東萊鄭氏派譜의 首編 第1張 앞 面이 原寸으로 影印이 되어 있고, ㉔印譜木活字本이라 題한 다음 아래와 같은 內容이 國漢文과 英文으로 紹介되어 있다. (英文은 略한다)

1859년 印《東萊鄭氏派譜》

鄭元容(1783—1873)이 東萊鄭氏의 鄭昌衍(1552—1636)의 子孫의 系譜를 엮은 派譜이다.

옆으로 넓은 筆書體 木活字로 인쇄하였고 族譜를 敬경하여 엮고 찍은 風潮가 18세기부터 성해서 印譜 木活字가 늘어났다.

- 1) 표 本: 首編 제1엽 3
- 2) 製作年代: 1859년 이진
- 3) 活字材料: 木
- 4) 活字크기: 大 1.1×1.6cm, 小 1.1×0.8cm
- 5) 字 本: 筆書體
- 6) 四 周: 單邊 (非固定)
- 7) 界 線: 10線
- 8) 字 行: 大 22字10行, 小 22字20行
- 9) 版 口: 白口
- 10) 魚 尾: 上二葉花紋
- 11) 半廓크기: 24.8×17.3cm
- 12) 半葉크기: 35.4×22.4cm

이어 “13) 다른 印本”이라하여 楊州趙氏譜 등 9種을 紹介하고 있으니, 이는 金斗鍾博士가 大東文化研究 第4輯에 p.52에 金博士의 私藏活字本書目中에서 추려 쓴 것에서 書名들만 移記한 것이 틀림없다.

이 “한국의 고활자”는 “간행사”에서 한국도서관학연구회 회장 이창세씨가 밝힌 것처럼 “손보기박사께서는 우리나라 활자의 발명과 발달의 역사를 서술”하였음에 틀림없고, “일러두기”에서 言及한 것처럼 “金斗鍾 博士의 一山文庫를 중심으로”한 것이 틀림없다.

所謂“印譜木活字”論

그러면 이 印譜木活字의 問題를 해결함에 있어, 金斗鍾博士가 쓴 “近世朝鮮後期活字印本에 關한 綜合的

考察”(大東文化研究 第4輯)이라는 題目의 論文에서 言及한 “印譜木活字”部分(p.50~53)을 再檢討할 必要가 생긴다.

金博士는 그 論文部分의 머리에서 族譜에 關한 序論을 쓴 다음 “哲宗10年己未(西紀1859)에 印出한 東萊鄭氏派譜 卷5冊의 卷末”에 있는 印記라는 것을 紹介하고, 다시 그 글을 要約하였으니, 대체로 族譜가 收單되어 印刷될 때까지의 過程을 자세히 說明한 셈이다. 그 說明 끝에 다시 檢討되어야 할 重要한 대목이 있으니,

印板工匠으로서 活字主人 및 擇字人으로 白琦煥을 들고 있다. 이것은 本活字의 所有者인 白琦煥 자신이 文選을 擔當하는 擇字人을 兼行하고 있었던 까닭이다. (略) 그러므로 本派譜는 民間人白琦煥의 所有活字로서 印刷製本된 것인 것을 確認할 수 있다.

라고 한 다음 이 活字의 命名을 하게 된 경위를 말하고 있으니

이렇게 族譜의 印刷에 主로 使用되어온 活字들을 印譜活字라고 부르게 한 것이다. 그러나 本 活字들이 族譜를 印刷한 餘暇에 自己祖先 들의 文集을 印出하기도 하였다.

고 하고, 이어서 私藏活字本書目中에서 추린 楊州趙氏譜 등 10種의 書名 冊數 刊行年月日 摘要를 나열하고, 本 活字本의 使用期間을 적었으니

本 印譜活字는 純祖25年頃부터 高宗34年(光武元年)以後까지 約71餘年에 걸쳐 族譜 및 私家文集들의 印刷에 많이 利用되었다.

라고 한 다음, 다른 印譜의 例를 또 具體的으로 들고 있으니

그리고 楊軒集의 李德秀跋에 印譜의 役을 끝낸 뒤에 다시 本書를 鑄字로서 繼印하였으므로 哲宗年頃에 楊軒 李石亨의 家譜인 延安李氏의 族譜도 本 活字로 印出되었던 것이며 光武以後에는 王家의 系譜인 璿源續譜까지 本 活字로 印出되었으므로 代表的 印譜活字로서 여기에 든 것이다.

라고 말한 끝에

本活字以外的 數 많은 族譜들은 各地方에서 제작기 雜種木活字로서 印出되어 그 系統을 세우기가 매우 어렵다.

고 斷言하고, 附圖 第25에 “楊州趙氏譜(私藏)〈印譜木活字〉”라 하여 楊州趙氏族譜序의 一面을 挿圖로 紹介하고, 印譜木活字의 項을 끝 맺고 있다.

元來 이 “印譜木活字”本의 東萊鄭氏派譜의 「印譜後錄」이라는 것은 通文館 主人인 李謙魯씨가 圖書 第七

號 p.36~40, 61에 發表했던 것으로, 그 發表에 있어 東萊鄭氏의 名譽를 위해서인지, 그 책의 書名과 重要人名을 切取해서 分間할 수 없어서인지 몰라도, 너무나 缺字(覆字)가 많아 引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李謙魯씨는 同書가 “木活字로 印刷되었다”고 言及하고 있다.

愚谷先生訓子格言

그러던 金博士가 言及한 것을 檢討하기 前에 역시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에 收藏되어 있으며, 義會忠義集傳보다 7年前에 印出된 것이 틀림없는 「辛卯活印」이라는 印出記가 分明히 있는 愚谷先生訓子格言이라는 冊을 一瞥할 必要가 있다. (이 冊은 金博士의 私藏書目에도 包含되어 있다)

이 책은 不分卷1卷으로서 卷首에 愚谷先生訓子格言序가 붙어 있으니,

姜奎奎煥以高祖愚谷公訓子格言一編來示余且徵余言(略) 崇禎後再甲辰(1724)十一月日西原韓元震謹序  
라하여 2張이 있고 이어 愚谷先生訓子格言圖說一面이 第3張 앞면에(木板에 彫刻되어) 組版되어 있으며, 그 뒷면부터

格言一篇即我高祖考愚谷先生所作也右圖不肖奎煥謹依其目錄及說而撰定(略) 崇禎後再丙申(1716)元月丁酉不肖玄孫奎煥謹識

라 한 編者 姜奎煥의 識文이 第4面 뒷면에 끝나고 있다. 그 다음에 愚谷先生訓子格言目錄이 第5~6張에 걸쳐 있다. 그 全文은 內容을 解題하기 보담도 理解가 쉬울 것 같으니 全文을 옮긴다.

統說, 立志, 收斂, 格物致知, 誠實, 矯氣質, 養志氣, 正心, 檢身, 恢德量, 改過遷善, 敦篤, 正家, 事親, 刑內, 教子, 友兄弟, 序長幼, 信朋友, 親親, 御婢僕, 待御黨, 摠論, 書(寄謫兒) 附錄(權厝誌)

이어 本文이 始作되는데 張次는 그대로 繼續되어 第7張부터 이다. 그 版式을 “記述編目”의 方式으로 써 보면

四周單邊. 半匣: 21.3×15.5cm. 有界. 10行20字.  
版心: 上下白口. 上六瓣花紋魚尾. 「愚谷訓子格言」(張次「七」) 單線.

와 같다. 이 책의 花紋은 꽃잎 一面이 다른 六瓣花紋魚尾의 例와는 特異하게 -I-型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本文은 第55張에 끝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著者의 아들인 姜錫奎가 撰한 權厝誌가 附錄으로 第60張까지 붙어 있으니 이는 著者의 墓誌와 같은 것으로 著者의 略傳이 包含되어 있다.(全文이 어려움으로 그것을 抄譯해

서 본다.(先君은 撰者의 父親으로 바로 訓子格言의 著者이다)

先君의 諱는 德後요, 字는 汝得이니 後에 愨叔으로 고치다. 自號는 愚谷이니 晉州人이다. 우리 姜氏는...晉山世稿라는 文集이 있고 醉竹(克誠)이... 三男을 나오니...長男은 壺溪(晉暉)이고...次가 草亭(晉昇)이다...河陰奉氏 司憲監察 諱聖濟의 딸을娶하여...萬曆丁未(1607)八月戊寅에 先君이 出生하다. 壺溪公(晉暉)이 宗子인데 後嗣가 없음으로...先君을 後로 하다. 牛溪先生(成渾)의 아들인 滄浪先生(成文潛)에게 受學하다...古聖賢의 格言至論을 모아 一軸의 책을 만들어 錫圭에게 주니 小學의 立教明倫敬身의 要와 大學의 格致誠正修齊의 方이 모두 具備했다...四男이 있으니 錫圭·錫命·錫福·錫九이다. 壬寅(1662)七月十七日戊申에 漣城집에서 돌아가시다...

이 略傳에 이어 洪錫周가 쓴 愚谷訓子格言後序 2張이 붙어 있다. 거기에는 날짜는 없고, 다만

爽周...近又得四養齋所編朱書分類讀之...今觀於愚谷公訓子格言始知其家庭之教...四養齋公之孫也竟以朱子書顯公之六世孫昌會錄梓是書而四養齋之曾孫在應又相左右之以就其役圖永其教於無窮  
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 經筵春秋館事藝文館提學奎章閣提學豐山洪爽周序

라고 되어 있다. 이 後序는 洪爽周의 文集인 淵泉集(1911. 鉛印本)의 附編에 있는 年譜를 調査하여 보니 1827~1831年사이에 쓰여진 것이 分明하다. 더구나 後序가 끝난 面 마지막行 아랫 쪽에 「辛卯活印」이라 있으니, 이 책의 印出은 純祖31年(1831) 洪爽周가 三月二十七日 奎章閣提學이된 날부터 그 해 年末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다.

이 책의 全文을 積은 活字의 原字는 義會堂忠義集傳을 積은 字와 完全히 同一하다. 部分的인 磨滅이 있는 것과, 補字가 섞인 것 등도 비슷한 程度이다.

이 책을 積은 場所가 分明히 나타나 있지않아, 어디서 積었는지 正確히 斷言할 수가 없다.

“木活字”에 對한 反記

그러던 이들을 積은 活字는 그 成分이 무엇인가 궁금하다.

或者는 이 책에 木活字가 섞인 것으로 因하여 이를 木活字本으로 斷定하는 모양이나, 그것은 事理에 맞지 않는다. 왜냐 하면 高麗때의 活字本이든, 壬辰戰直後의 活字本이든간에 木活字와 金屬活字를 混用하였으면 金屬活字本인 것이다.

그것은 木活字로서 組版하는데 글자가 不足해서 金屬活字를 補鑄하거나, 또는 있는 金屬活字를 木活字사이에 混用해서 組版했다고 말하는 것은 不當한 理論이며, 도리혀 그 反對인 金屬活字를 組版하다 보니, 너무나 不足하여 木活字를 刻成하여 補充해서 使用했다고 하는 것이 옳은 理論이다.

이러한 면에서 筆者는 先學들이 無分別하게 木活字本으로 區分하여 놓은 訓監字本이나, 印刷된 자육도 區分못하여 混同하고 있는 生生字本에 對하여는 異論을 품어오고 있거니와, 이와 마찬가지로 “印譜木活字”本云云하여 이 忠義集傳이나 訓子格言을 적은 活字까지도 木活字의 範圍에 넣어 論說하고 있는 것을 反對하는 바이다.

그 첫째 理由로는 이들 책을 적은 活字들을 肉眼으로나 寫眞으로 擴大하여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도 平面感만으로 分別할 수 없으면 百倍乃至二百倍로 擴大해서 볼 수 있는 變眼立體顯微鏡(所謂 解剖顯微鏡)으로 擴大하여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증거로는 1911~35間에 朝鮮總督府에서 編한 朝鮮活字類聚라는 文獻을 들 수가 있다. 이 책은 藏書閣에 所藏되어 있는 책인 바, 筆者가 그곳 圖書를 정리하다 알게 된 것으로, 當時 朝鮮總督府 博物館에 實存하고 있던 活字를 가지고 實地로 組版해서 적은 것이며, 全13張이다. 이 속에는 衛夫人字·實錄字·韓構字整理字·鐵字 그리고 이름을 붙이지 않은 한글活字와 漢文活字가 標本으로 적혀 있다.

이 속에서 版心에 “鐵”이라고 적힌 第9~10張이 바로 지금까지 말한 忠義集傳과 訓子格言을 적은 活字와 꼭 같은 活字인 것이다. 거기에는 “笑”字를 비롯한 大字가 500字 한張, “丁”字를 비롯한 小字가 1200字 한張이 標本으로 적혀 있다.

이들은 일찌기 京城府史 第一卷 p.428~429에서도 言及되어 鐵活字 16256箇가 있음이 알려졌고, 그들이 光復後에 그대로 國立博物館에 引繼되어 그 本館所藏 品目錄(1963. 油印本) p.14 番號 3359~70에도 實物이 現存하고 있음이 알려지고 있으니, 그中

3366 鐵活字大字 1

3367 鐵活字小字 1

이 그것이다. 그러면 이 活字들이 鐵로 鑄造되지 아니 하였는데도 鐵字나 鐵字라고 할 수는 없지않는가!

세번째 역시 文獻이니, 昭和六年(1931)十月에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에서 行한 朝鮮活字印刷資料展觀目錄 p.27에 보면 鐵活字로 적힌 冊中에 東國關里誌와 重山齋集을 들고 있다. 이 中 重山齋集은 奎章閣에 所藏되어 있어 筆者의 韓國古活字本圖錄(未刊)에도 收錄되어 있거니와 이번이 이 小記를 쓰는 機會에 高麗大

學校中央圖書館 所藏 完帙本을 再調査하였고, 東國關里誌는 奎章閣에도 所藏되어 있거니와 高麗大學校 附設 亞細亞問題研究所의 六堂文庫에도 收藏되어 있다. 이들 두가지 책도 역시 義會堂忠義集傳이나 愚谷先生 訓子格言과 完全히 同一한 金屬活字로 적힌 책인 것이니 이들을 鐵活字라고 한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側의 見解는 옳은 것이다.

### 白麟先生見解

그런데 여기 注目할만한 論文이 있으니 그것은 當時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의 司書官인 白麟先生이 韓國史研究 4에 “朝鮮後期活字本の 形態書誌學的研究(下)”라는 題目下에 發表한 것으로 p.152~153에 “鐵活字”라는 項目으로 다룬 部分이다.

거기에 보면 前述한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의 展觀目錄과 “朝鮮古活字”에 例示된 鐵活字에 對해 言及하고 있으니, 그 中 標本으로 前述한 東國關里誌를 들고 있으며, 그 책에 몇가지 말한 다음 文末에 아래와 같이 써놓고 있으니 즉

어쨌든 이 活字는 考證한 根據資料가 없어서 鑄造年代에 따른 字名을 붙이기 어렵고 總督府에 의하여 調査된 朝鮮活字에서 이 活字를 鐵活字라 하였기 때문에 좀 어색하지만 그대로 鐵活字라 稱한 것이다.

그러나 이 活字는 1909年 이전에 이미 國有이었던 것이 確實하며, 그 鑄造年代는 憲宗朝 이전으로 소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나 이의 結論은 좀 더 時間을 두고 進지한 調査가 있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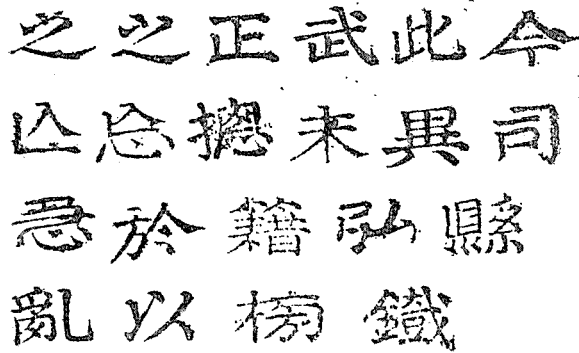
고 말하고 있다. 勿論 白麟先生의 이 論文에도 問題點이 몇가지 없지는 않으나, 命名에서 “鐵活字”를 다룬 것이라든지, 또 活字의 所有가 1909年 以前에 이미 國有化 되었을 것이라는 論據 등은 金斗鍾博士가 東萊鄭氏派譜의 印譜後錄에 있는 活字主人白瑞煥이라 小字의 註에 역매어 그 活字가 처음부터 民間의 所有인 것처럼 論證한것 보담은 愼重한 것이라 하겠다.

한가지 이 論文에서 아쉬운 것은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는 奎章閣本이나 古圖書本 中에 너무나 많은 이 活字로 적은 책들을 더 例示 못하고 中斷한 것이다.(所藏目錄은 下項參照)

### 이 活字의 特徵

그러면 이들 活字는 어떤 特徵을 가지고 있는가를 考察할 必要가 있다.

첫째 글자의 모양에서 가장 뚜렷한 것 몇 가지를 들면 “之, 別, 正, 榜, 以, 忘, 此” 등을 들 수가 있다. (아랫圖 參照)



그중 “之”字는 첫 筆劃의 點이 두번째 筆劃의 線속으로 侵入하여 있고, 두번째 筆劃의 線의 特異한 曲線과, 굵은 部分과 가는 部分의 特徵은 이 活字의 代表的인 標準字로 들 수가 있으며, 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글자이다.

또 “正”과 “此”를 例示한 것은 이 活字로 찍은 책中에는 正字의 마지막 筆劃인 “一”이 짧은 것과, 此字의 止部分中の 마지막 筆劃인 “一”이 짧은 것이 例外없이 包含되어 있으며, 긴 것이 도리켜 많음을 指摘해 놓고 싶어서 이다.

두번째 特徵으로는 例外는 있으나 글자의 모양이 세로보다 가로가 더 길게 보이며, 活字가 옆으로 긴 長方形이 아닌가 하는 印象을 준다.

한가지 注意할 것은 이 活字로 찍은 책의 初印本은 完全히 把握되지 않아 모르지만, 大體로 木活字의 補字가 많이 섞여 있으므로 補字로 字型을 判斷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 活字의 字體에 對해 筆者는 書藝가 專攻이 아니므로 “宋體나, 明體나”하는 式의 言及을 할 수 없으며, 書道六體大字典을 들추어 보아도 어느 特定人의 字體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言及치 못함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다만 중금한 것은 所謂 “小型筆書體木活字”라는 活字의 書體로부터 어떠한 影響을 받았거나, 주지 않으나 하는 것이 豫想되며, 또 所謂 “芸閣筆書體字”라는 活字와는 그 印出時期의 年差는 甚하지만 影響을 받은 것만은 틀림 없으며, 司譯院에서 使用한 活字와도 어떤 關聯이 있는 것만은 또한 틀림없다.

이들 세가지 活字에 對하여는 따로 原稿가 準備中에 있으니 後日로 미룬다.

또 奎章閣에는 “唐鐵字大小”라는 책이 남아 있는 바

이 책은 寫本임으로 本活字와의 關聯與否를 斷定지을 수 없으므로 이는 究明되는 대로 따로 紹介하겠다.

같은 活字 印出本들

그러면 이 活字로 찍은 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자. 이들에 대하여는 忠義集傳이나 訓子格言의 경우와 같이 하나하나 解題코자 하였으나 紙面關係로 省略하고, 다만 그 책들의 書名을 印出年代順으로 記錄하고, 筆者가 實查한 冊들의 所藏處를 밝힌다. 金斗鍾博士의 私藏書目(現國立中央圖書館藏)과 “한국의 고찰자”에 言及한 것은 同一함으로 “一山”이라 備考欄에 表示한다.

이들 中 筆者가 實查한 책의 “奎”는 奎章閣藏本(現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 保管中)이며, “藏”은 文化財管理局 藏書閣事務所藏本, “高”는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藏本, “六堂”은 高麗大學校 附設 亞細亞問題研究所 六堂文庫本 들이다.

印出年代	書名	實查한冊	備考
1825?	楊州趙氏族譜		一山
1826?	坡平尹氏世譜	高奎	
1827	光山卓氏世稿	奎, 高	一山
1831	愚谷先生訓子格言	奎	
1833	安東金氏世譜	奎	
1833?	南陽洪氏世譜	奎	
1836	昌寧成氏思肅公派譜	奎, 高	
1837	義會堂忠義集傳	奎, 六堂	一山
1839	東國關里誌	奎	
1844?	昌寧成氏族譜附錄文獻志	奎, 六堂	
1850	關里誌	奎	
1850	景濂亭集	奎	一山
1851	歸休堂集	奎, 高	
1858	重山齋集	奎	
1858?	東岡先生遺稿	奎, 六堂	一山
1859	東萊鄭氏派譜	六堂	
1860	松穆館集		一山
1863	樗軒集	奎	
1864	陝川李氏世譜	奎	一山
1871	咸從魚氏世譜	奎	
1873	慶州金氏世譜	高	
1877	南平文氏族譜	奎, 高	
1879	籌學入格案	高	
1885	醫科榜目	奎, 六堂	一山
1891	譯科榜目	奎	
1892	驪州李氏派譜	高	
1902	漆原尹氏世譜	奎, 藏	一山
1904~6	瘡源續譜		

(19面 下端에 繼續)

教育訓練課程에 대한 指針

- 地域別 古文獻士訓練을 위한 교육과정
- 文書保存所에 응용하기 위한 自動資料處理에 대한 基本訓練

主要 배포예정 刊行物은 아래와 같다.

- *Analysis and synoptic tables of contents of selected textbooks.*
- *Survey of training programmes for documentalist and librarians.*

人口活動을 위한 UN基金

1972년에 방콕에 있는 유네스코 亞洲地域教育處에서 人口教育을 위한 地域內의 크리어링 하우스 업무를 시작하였다. 1973-74年間에도 人口教育에 關係 資料의 製作과 教育活動을 계속할 것이며 資料는 地域內 國家에 배포하여 人口教育計劃에 參考하도록 할 예정이다.

國家의 家族計劃과 人口問題 活動에 關한 文獻, 情報의 調查研究를 着手하여 調查結果에 따라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中東地域에 1個所씩 人口問題 文獻, 情報센터를 設置할 計劃이다.

유네스코 圖書館誌(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本誌는 文獻, 圖書館, 文書管理學 및 出版에 關한 世界 各國의 최근 傾向과 유네스코와 契約下에 수행되고 있는 重要 研究사업 및 研究結果에 대한 記事를 收錄하고 있는 專門誌이다.

(10面에서 繼續)

한가지 사과할 것은 筆者의 淺學의 탓으로, 整理되어 出版된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과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 그리고 이보다 앞서 原稿가 이루어졌던 韓國古書綜合目錄에 이들 活字本을 木活字本으로 表示한 것과 引用한 것 등을 訂正케 되었음이다.

그리고 위표에 例示한 것은 名稱인데 어디까지나 이 活字로 印出되었던 冊의 極히 一部分이며, 그들의 書牒의인 記述事項이나 參考事項은 前述한 藏書目錄과 綜合目錄을 一次로 參考할 수 있으며 앞으로 나올 朝鮮典籍誌(未刊)에 의해 補完케 될것으로 믿는다.

이 活字의 名稱

이제 남은 것은 “印譜木活字”라는 것은 名稱인데 前述한 것에 의하여 否認이 된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金斗鍾博士가 말한것 처럼 印譜活字라는 것 조차도 그 名稱이 맞지 않는다.

그것은 위의 一覽表가 證明하고 있으니, 알려진 全種數가 28種인데 그 半數가 넘는 15種이 族譜(系譜,

隔月間으로서 英, 佛, 西, 露語 版으로 나오며 出版部數는 15,000部에 이르고 있다. 1973年 부터는 아랍語版이 에집트 유네스코 國內委員會와 契約下에 카이로에서 刊行될 예정이다.

專門誌들과의 協助

유네스코는 1972年 5월에 파리에서 文獻센터, 圖書館, 文書保存所 계통의 專門誌 편집인들의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編輯人 상호간의 紐帶를 強化하고 情報交換의 增進을 모색하고 著作權에 關제된 抄錄使用에 대한 方法的인 合意를 이룩하였었다.

1973-74年間에 同 심포지움에서의 勸告案이 各國 유네스코 國內委員會와 關제 專門誌 編輯者들에게 廣範하게 배포할 계획이다. 同 심포지움에서 아래 두가지 事項에 대해 研究를 着手하도록 提起되었었다. 첫째는 文獻센터, 도서관, 文書保存所 分野에서 主要 抄錄과 索引業務에 대한 比較分析, 둘째는 專門誌의 發刊, 寄贈에 대한 調査이다. FID에서 刊行하는 *Library and documentation journals* 은 앞으로 文書保存所 專門誌도 包含시켜 擴張할 예정이다.

또한 심포지움에서는 地域이나 國家의인 水準에서 編輯人會議를 갖도록 권고 하고 있다. 아울러 IFLA에서는 圖書館誌 編輯人 會議를 IFLA 年次會議와 같이 1973年 8月 그레노블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FID와 共同主催로 關係分野 編輯人들의 地域會議가 호주에서 1973年 10월에 開催될 豫定이다. (次號繼續)

宗譜, 派譜 등)가 아닌 것을 印出한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

혹 碧源續譜가 여러번 印出된것을 들어 反論할런지 모르지만, 活字라는 것은 एं당초 鑄字의 目的이 印譜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끝 으 로

以上으로서 “印譜木活字”라고 從前에 불려왔던 活字가 鐵로 鑄成된 金屬活字이며, 그것은 印譜를 主로 한 活字가 아닌 것을 밝혔고, 印出記가 分明한 冊인 忠義集傳을 紹介하였으며, 아울러 訓子格言도 紹介하였다.

그리고 그 印本으로 알려 진것이 28種이나되는 그 書名을 밝혔고, 이들 活字가 實存해 있음을 말하였다.

다만, 筆者는 國立博物館의 所藏品을 實查하지 않고 文獻에만 의존 한 것과 空間과 涉問의 制約으로 朝鮮典籍誌(未刊) 및 其他 文獻을 陟臘치 못하여, 더 많은 印出本을 提示못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同學의 叱正을 빈다. (癸丑年秋夕節稿了)